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표상에 관한 연구*

유 영 미** 이 영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는 인형놀이 면접에서 유아가 사용하는 나레이티브를 분석하여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표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4세 및 5세 남·여 각각 10명씩 총 40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MacArthur 이야기 꾸미기 도구(MacArthur Story-Stem Battery)를 이용하여 인형놀이 면접을 실시하고 비디오로 녹화하였으며, 녹화된 자료는 Oppenheim, Emde와 Warren(1997)의 관찰 범주를 이용하여 유아의 반응을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유아들은 어머니를 긍정적으로 표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혼육적으로 표상하였고, 부정적으로 표상하는 경우가 가장 적었다. 남아는 4세보다 5세가 어머니에 대해 더 긍정적이고 혼육적으로 표상한 반면, 여아는 5세보다 4세가 어머니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표상하였고 혼육적 표상에서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인 표상행동 중에서 '애정표시하기'에서만 남아보다 여아가 더 많이 표상하였다. 어머니를 긍정적이고 혼육적으로 표상할수록 부정적 표상은 더 적었다.

아동이 부모와 맺는 관계의 질은 다양하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자라는 형제라도 그들이 부모와 맺고있는 관계의 질은 차이를 보인다. 부모-자녀 관계의 질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접근에는 부모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연구들과 어린 아동과 부모간의 애착에 초점을 두고 설

명하는 연구들이 있다. 부모양육행동과 사회화를 보는 연구들은 부모의 자녀양육태도가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해준다고 보아 부모의 행동을 기술하는 데 초점을 두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의 양육방식은 민주형과 통제형이다(김경희, 1995). 한편, 부모-자녀간의 애착에 초점을 두고 이 둘

* 이 논문은 2000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ryuym@hotmail.com

간의 관계의 질적 차이를 설명하는 애착연구에서는 아동과 부모의 관계 안정성 차원에서 개인의 차의 유형에 관심을 둔다. Bowlby(1982)는 애착조직화에서의 개인차를 애착과 관련한 자아의 정신적 표상, 즉 “내적 실행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에서의 개인차로 재개념화 하였다. Bowlby (1982)에 의하면 영아는 양육자의 접근가능성과 반응성을 바탕으로 내적으로 표상된 기대를 형성하며, 이 조직화된 기대가 내적 실행 모델이 되어 매일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내적 실행 모델의 기초는 생후 첫 1년 동안에 형성되며 이는 한번 조직되면 쉽게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외부세계를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들이 누적되면서(Main, Kaplan, & Cassidy, 1985) 영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애착연구는 유아, 아동 그리고 성인기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유아기 애착연구는 유아의 사회·정서적 이해의 발달 및 사건표상의 발달을 애착이론에 통합시켜 개인차의 기원을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Bretherton, 1985).

한편, 유아의 애착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들은 수정된 낯선 상황 실험, 애착 Q-set, 이야기 완성기법 등이 있다. 수정된 낯선 상황 실험은 애착안정성을 질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유아가 이미 언어 및 사회적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데다 단지 1회의 재결합만으로 이루어지는 실험절차의 한계로 인해 재결합 절차를 늘려 시행하거나 혹은 애착에 대한 유아의 표상을 보는 절차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Main & Cassidy, 1988). 애착 Q-set은 안전-기반 행동에 초점을 둔 자연적 관찰 기법으로 애착 행동의 양적인 개인차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어머니가 분류하기에는 다소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분류하는 동안 적절한 지도와 감독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이영·박경자·나유미, 1997).

이야기 완성기법은 인형놀이 애착면접(Attachment Doll-play Interview, ADI)이나 격리불안 테스트 등을

시행하여 유아에게 애착주제들에 관한 나레이티브를 구성하도록 하여 유아의 애착에 대한 정신적 표상, 즉 내적 실행 모델을 평가한다. 많은 연구들이 초기 또는 현재의 애착에 대한 관찰평가와 내적 실행 모델에 관한 나레이티브 평가간의 상호연관성을 제시하며 이야기 완성기법이 유아의 애착안정성 평가에 적합하고 유용한 방법임을 경험적으로 입증해왔다. 영아기의 애착안정성은 6세 아동의 나레이티브에서 정서적 개방성 및 가설적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건설적 해결능력을 예측했고(Main, Kaplan, & Cassidy, 1985), 이야기완성기법에 기반한 3세와 6세 아동의 현재의 애착안정성 평가와 격리-재결합 절차가 상호연관이 있었으며(Bretherton, Ridgeway, & Cassidy, 1990; Cassidy, 1988), 인형놀이를 이용한 유아의 애착 나레이티브와 자연스런 상황에서의 격리-재결합도 상호연관을 보였다(Oppenheim, 1997). 또한 격리불안 테스트 평정과 격리-재결합 절차간의 연관성도 발견되었다(Shouldice & Stevenson-Hinde, 1992; Slough & Greenberg, 1990). Oppenheim(1997)은 이야기완성기법을 이용한 이전 연구들을 종합하여 유아의 애착안정성 평가는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제시하였다. 즉, 정서적으로 부담되고 갈등을 야기하는 주제에 대해 개방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 격리 및 스트레스 상황에서 건설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 이야기 완성시 나타나는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의 질이 그것이다.

이런 이야기완성기법에 사용되는 이야기의 시작 또는 즐기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해서 Bretherton, Oppenheim, Buchsbaum, Emde와 the MacArthur Narrative Group(1990)은 MacArthur 이야기 꾸미기 도구 (MacArthur Story-Stem Battery; 이하 MSSB로 기술함)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관계, 갈등 및 정서적 상황들에 대한 유아의 내적 표상을 알아보기 위해 놀이상황에서 유아가 보이는 나레이티브를 분석한다. 각 이야기의 시작이 구조화되어 있기는 하나 유아들은 자기가 선택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끝맺으며 유아가 보이는 반응도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Oppenheim, Emde와 Warren(1997)은 MSSB 나레이티브에서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 혼욕적 표상이 많고 부정적 표상이 적었던 유아는 행동문제도 적고 어머니도 심리적 고통이 적음을 발견했다. Oppenheim, Nir, Warren과 Emde(1997)는 MSSB 나레이티브에서 정서적으로 일관성을 보인 유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격리-재결합에 관한 이야기를 구성하는 과제에서도 더 일관성을 보였으며, 행동문제도 더 적음을 발견했다. 신의진·이경숙·이혜란(1999)은 MSSB 나레이티브에서 유아들이 부정적인 정신적 표상을 흔히 보였으며 부모들은 유아를 도와주는 긍정적인 표상으로 나타남을 발견했다. 또한 공격적 주제를 많이 보이는 유아들은 부정적인 정서반응과 부모에 대해 부정적인 정신적 표상을 많이 나타남을 발견했다.

한편 유아의 성과 연령에 따른 어머니-유아간 애착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아의 성에 따른 애착행동의 차이에 관해서 일치되지 않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애착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보고(LaFreniere & Sroufe, 1985; Park & Waters, 1989)와 여아가 남아보다 애착안정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거나(홍계옥, 1995)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Londerville & Main, 1981; Turner, 1991)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유아의 연령에 따른 애착행동의 차이에 대해서는 37개월과 54개월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에서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보고(Bretherton, Prentiss & Ridgeway, 1990)와 4세와 5세 사이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에서의 개인차가 적절히 안정적이면서도, 5세 유아들은 4세 때에 비해 긍정적, 혼욕적 표상이 많아지고 부정적 표상은 줄었다(Oppenheim, Emde, & Warren, 1997)고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애착연구들은 영아를 대상으로 애착유형을 분류하는 연구들(나유미, 1996; 박용임, 1995; 박용임·유명희, 1997; 이영환, 1993; 이정희, 1993)이 대부분이다.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애착을 연구한 논문들도 Main과 Cassidy(1988)의

수정된 낯선 상황실험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거나(홍계옥, 1994; 홍계옥·정옥분, 1995; 홍계옥·최경순, 1996), Slough와 Greenberg(1990)의 격리불안테스트를 이용하여 애착표상을 측정하였을 뿐(이숙희·김숙령, 1995; 조은영, 1996), 유아가 놀이상황에서 보여주는 나레이티브를 이용한 연구는 신의진·이경숙·이혜란(1999)을 제외하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유아가 놀이상황에서 보여주는 나레이티브를 이용하는 연구의 중요성은 부모양육행동 연구에서도 지지될 수 있다. 아동은 주변의 환경을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보고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chaefer, 1965; Kagan, 1971)는 견해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해왔으나 주로 설문지를 이용했기 때문에 연구대상이 학령기 아동 이상으로 제한되어왔다. 따라서 유아를 대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법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부모-자녀관계의 맥락에서 갈등과 정서적 사건들을 해결하는 놀이 중의 나레이티브를 통해 유아의 정신적 표상을 평가하는 MSSB의 유용성에 강조를 두고, 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4세와 5세 남·여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표상은 성과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표상범주(긍정적 표상, 부정적 표상, 혼욕적 표상)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방 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신도시의 유치원 한

곳에 재원중인 4세 및 5세 유아로서, 연령별로 남·여 각 10명씩 총 40명이었다. 표집의 연령범위는 4세의 경우 51개월부터 59개월로 평균 56.5개월이었으며, 5세의 경우는 63개월로부터 69개월로 평균 67.1개월이었다. 유아의 90%가 한 명 이상의 형제가 있고, 10%는 외동이었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3세(26~44세)였으며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9명(22.5%)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하는 7명(17.5%), 대졸 29명(72.5%), 대학원 졸업자가 4명(10%)이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표상을 알아보기 위해 1990년에 Bretherton, Oppenheim, Buchsbaum, Emde와 the MacArthur Narrative Group이 개발한 MacArthur 이야기 꾸미기 도구(MSSB)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MSSB의 총 12가지의 이야기 도입부 중,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를 거쳐 '주스를 쏟았어요', '강아지를 찾아서', '뜨거운 국냄비', '엄마의 두통', '열쇠를 잃어버렸대요', '부모의 여행출발', '재회', '사탕을 훔쳤어요', '약장', '소외' 등의 10가지 이야기 도입부만을 사용하였다. MSSB는 먼저 유아에게 연구자와 유아가 함께 인형놀이를 할 것이며, 연구자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면 유아가 받아서 계속 진행하고 끝맺는 것이라고 소개하며 시작한다. 이어 어머니, 아버지, 형(혹은 언니), 동생, 할머니, 강아지로 구성된 가족이 등장하는 연습이야기가 제시되고 유아는 등장인형들에게 이름을 지어준다. 등장인형 중 어린 이인형 2명은 유아와 동성(同性)이다. 연습이야기는 어머니 인형이 형(혹은 언니)을 위한 생일파티를 열자고 가족을 불러모으는 것으로 시작되며, 연구자는 유아에게 이야기를 받아서 완성하되, 이야기투로, 표현적으로 완성하라고 격려해 준다. 유아가 다음 중 최소한 세 가지를 보이면 다음 이야기도입부로 진행한다. 즉, 연구자와 대화하기, 인형들을 만지작거리기, 등장인형 목소리로 말하

기, 또는 생일파티 이야기에 관해 언급하기 등이 그것이다. 이야기도입부들은 유아가 적절한 기분 상태가 되도록 돕기 위해 인형을 살아있는 듯이 움직여주고, 극적인 방법으로 제시하며, "자,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주고 얘기해줄래?" 라고 요청하며 끝맺는다.

유아의 나레이티브를 촉진하기 위해 세 가지 유형의 비지시적 자극이 사용되는데, 첫째, 각 이야기의 이슈에 초점을 맞춰서, 유아가 이슈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때는 "그들은 그 주스를 어떻게 했니?"하고 말해준다. 둘째, 유아가 행위자에 대해 불확실하게 얘기할 때는 "누가 반창고를 붙여주었니?" 또는 유아가 인형의 행위에 대한 묘사 없이 인형을 움직일 때 "그 애는 무엇을 하고있니?" 하고 질문한다. 셋째, 유아가 말이나 동작으로 이야

표 1. 어머니에 대한 표상의 범주 및 표상행동별 조작적 정의

I. 긍정적 표상	
1. 보호하기:	실제 또는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해주는 행동
2. 양육하기:	자녀를 돌봐주고, 달래주고, 먹여주고, 편안하게 해 주는 행동
3. 애정표시하기:	자녀에게 뽀뽀하고, 안아주고, 칭찬하고, 따뜻하게 상호작용 하는 행동
4. 도움주기:	자녀의 일을 도와주는 행동
5. 용서해주기:	갈등이나 안좋은 일을 용서해주는 행동
II. 부정적 표상	
1. 신체적으로 벌주기:	자녀에게 벌을 잘 주고 신체적으로 거칠게 다루는 행동
2. 거친 언어 사용하기:	자녀에게 말로 위협하거나, 비난하고, 창피를 주는 행동
3. 비정형적인 행동하기:	자녀에게 부정적인 정서적 특성을 갖는 일관되지 않은 행동들을 하거나, 자녀가 어머니에게 피상하고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
III. 혼욕적 표상	
1. 혼욕하기:	자녀를 혼욕하고, 통제하고, "착한" 행동은 상을 주는 권위있는 행동

기가 끝났음을 표시하지 않은 한 상세한 설명을 끌어내기 위해 “또 다른 일이 일어났니?” 하고 질문한다. 연구자는 유아가 한 이야기에서 중요한 이슈를 언급하고 나레이티브를 끝맺은 다음에만 다음 이야기로 넘어간다. 만일 유아가 그 이야기에서 중요한 이슈를 언급한 후에 계속적으로 부가적인 주제들을 발전시키면 자연스럽게 멈추기를 기다렸다가 “그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니?”하고 묻는다.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표상은 MSSB를 이용하여 얻어진 유아의 나레이티브를 요인 분석한 Oppenheim, Emde와 Warren(1997)의 연구에서 분류된 긍정적 표상, 부정적 표상, 혼육적 표상의 세 가지 범주 유형을 따라 분석하였다. 각 표상범주 및 표상행동별 조작적 정의는 표 1과 같다.

연구자료의 관찰자간 신뢰도를 산정하기 위하여 먼저 예비조사 때 녹화된 테이프를 유아교육 전공 대학원생 1명과 표상범주에 따른 분석훈련을 하였고, 연구대상이 아닌 6명의 유아의 자료에 대해 Cohen's Kappa 계수로 .90이 산출되었다. 같은 자료를 가지고 1주일 후 본 연구자가 다시 분석하여 계산한 관찰자 내 신뢰도는 .93이었다.

3. 연구절차

예비조사는 관찰도구 및 관찰범주의 적절성을 조사하고, 소요되는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 연령의 유아 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12가지 이야기도입부 중 반응이 다양하지 않은 두 가지 이야기 도입부(‘셋은 너무 많아’, ‘쿠키 훔치기’)는 본 조사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한편 유아들은 12가지 이야기들을 별개의 사건들이 아니라 연속되는 일과 중의 이야기로 이해하고 반응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본 조사에서는 이야기 도입부의 전개 시 가족에게 하루 동안 일어나는 사건들로 상정하고 등장 인형들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유아들은 2개의 어린이인형이 유아와 동성인 형제(혹은 자매)로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기 가족의 출생순위에 따라 인형의 성별을 정하고 이름을 붙여주고자 하였다. 소요되는 시간은 40분에서 60분으로 평균 48분이었다.

본조사는 1999년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에 걸쳐 연구자 단독으로 실시하였다. 유아들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연구자는 본 조사시간 전에 여러 차례 유아들의 유치원활동에 함께 참여하였다. MSSB를 이용한 인형놀이 면접은 유치원의 특별활동실에서 이루어졌으며 모든 과정은 비디오로 녹화되었다.

4. 자료 분석

비디오로 녹화된 관찰자료는 유아가 이야기를 완성할 때 한 모든 말 뿐 아니라 표정이나 어조까지 주의 깊게 기록한 후, Oppenheim, Emde와 Warren(1997)이 제시한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 범주에 따라 각각의 이야기에서 표상행동들이 있고 없음을 코딩하였다. 예를 들어, 유아가 엄마인형을 어린이인형에게 다가서게 하며 “엄마가 혼내요”라고 말하는 경우, 연구자는 비지시적 자극을 사용하여 어떻게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게 하였다. “때때때때 땀땀”했다고 하면 ‘신체적으로 벌주기’에, 인상을 찌푸리며 “으이그, 저런 병신”했다면 ‘거친 언어 사용하기’에, 위엄있는 어조로 “그러면 안돼”했다면, ‘혼육하기’에 코딩하였다. 유아들은 하나의 이야기에서 여러 개의 표상행동에 코딩될 수 있으나, 동일 표상행동은 표상된 횟수에 관계없이 각 이야기 당 한번만 코딩되었다. MSSB에서 유아가 어머니에 대해 표상한 것을 반영하는 표상점수는 전체 10가지 이야기에서 해당 표상행동이 코딩된 횟수를 평균하여 산출하였다. 예를 들어, 유아가 10가지 이야기를 완성하며 도움주기 표상행동에 6번 코딩되었다면 도움주기 표상행동의 표상점수는 0.6이 된다. 연구문제의 자료분석을 위해서는 빈도 및 백분율, 이원변량분석, Pearson의 상관계수를 이용하였다.

결 과

1. 유아의 성과 연령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표상

유아가 놀이상황에서 이야기를 완성하며 어머니에 대해 어떻게 표상 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유아의 성과 연령에 따라 표상범주별로 빈도 및 백분율을 살펴보았다.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은 대체로 긍정적인(65%)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혼육적인 표상이 많았으며(19.4%), 부정적인 표상(15.6%)은 가장 적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표상행동으로는 긍정적 표상 범주에 속하는 양육하기가 가장 많았고(37.6%), 다음으로는 혼육적 표상 범주에 속하는 혼육하기(19.4%), 긍정적 표상범주에 속하는 애정표시하기(15.4%)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이 성과 연령에 따라 표상범주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유아의 성과 연령에 따른 표상범주별 표

표 2. 유아의 성과 연령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표상범주별 표상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표 상 범 주		
	긍정적 표상	부정적 표상	혼육적 표상
남(n=20)			
4세	1.46(.62)	1.03(1.17)	1.50(1.18)
5세	1.86(.57)	.57(.80)	3.80(1.32)
전체	1.66(.61)	.80(1.00)	2.65(1.69)
여(n=20)			
4세	2.00(.46)	.50(.55)	2.50(1.65)
5세	1.70(.46)	.70(.69)	2.60(1.51)
전체	1.85(.47)	.60(.61)	2.55(1.54)
전체(N=40)			
4세	1.73(.60)	.77(.93)	2.00(1.49)
5세	1.78(.51)	.63(.73)	3.20(1.51)
전체	1.75(.55)	.70(.83)	2.60(1.60)

상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에 제시된 어머니에 대한 표상점수에 대해 표상범주별로 유아의 성과 연령에 따라 이원변량 분석을 하였다.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 표상점수는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효과($F(1,36)=4.295,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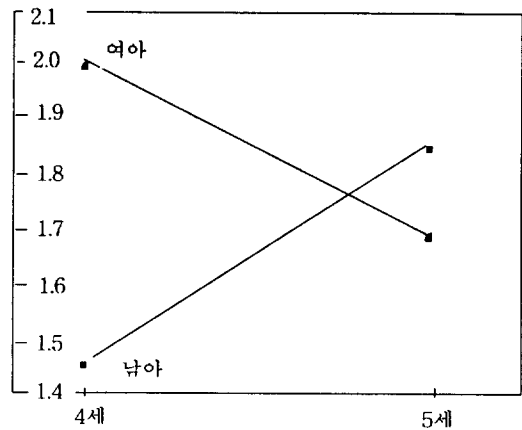


그림 1. 긍정적 표상에 대한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아의 경우 5세 ($M=1.86$)가 4세($M=1.46$)보다 어머니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표상 해낸 데 반해, 여아의 경우는 4세 ($M=2.00$)가 5세($M=1.70$)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표상 해냈음을 알 수 있다. 즉, 남아는 연령 증가에 따라 긍정적 표상이 더 많아지지만, 여아는 오히려 연령증가에 따라 긍정적 표상이 적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 표상은 유아의 성과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어머니에 대한 혼육적 표상은 연령에 따른 주효과($F(1,36)=7.101, p<.05$)와 성과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효과($F(1,36)=5.967, p<.05$)가 나타났는데,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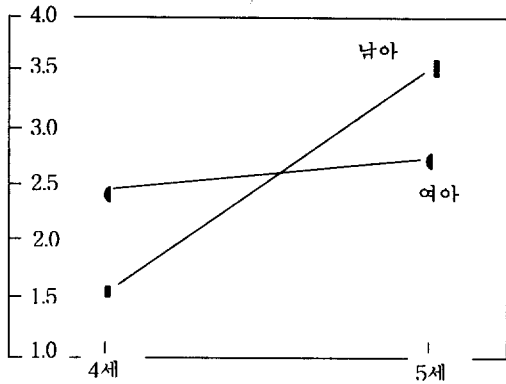


그림 2. 훈육적 표상에 대한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효과

그림 2를 보면 전반적으로 5세가 4세보다 어머니를 훈육적으로 표상한 경우가 더 많았으나, 남아는 4세(M=1.50)보다 5세(M=3.80)가 어머니를 훈육적으로 표상한 경우가 더 많은 반면 여아는 5세(M=2.60)와 4세(M=2.50)가 비슷하였다. 즉, 남아의 경우는 연령 증가에 따라 어머니에 대한 훈육적 표상이 많아지지만, 여아의 경우는 연령 증가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표상이 성과 연령에 따라 표상행동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유아의 성과 연령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표상행동별 표상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3에 제시하였으며 표상행동별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에 대한 표상행동 중에서는 애정표시하기 표상행동에서 성에 따른 주효과($F(1,36)=9.736, p<.05$)가 나타났고, 훈육하기 표상행동에서 연령에 따른 주효과($F(1,36)=7.101, p<.05$)와 성과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F(1,36)=5.967, p<.05$)가 나타났을 뿐, 그밖에 다른 표상행동에서는 유아의 성과 연령에 따른 주효과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훈육하기 표상행동에 대한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를 도식화한 것은 앞서 제시한 그림 2와 같다(훈육적 표상범주는 훈육하기의 단일 표상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여아는 남

표 3. 유아의 성과 연령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표상행동별 표상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N=40)

표상행동	남		여		4세		5세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보호하기	.30	.47	.30	.47	.25	.44	.35	.49	.30	.46
양육하기	5.35	2.28	4.80	1.36	4.80	2.09	5.35	1.63	5.08	1.87
애정표시하기	1.50	1.10	2.65	1.23	2.30	1.34	1.85	1.23	2.08	1.29
도움주기	.60	.50	.75	.55	.70	.57	.65	.49	.68	.53
용서하기	.55	1.00	.75	.79	.60	.82	.70	.98	.65	.89
신체적으로 벌주기	.45	1.00	.40	.75	.45	.94	.40	.82	.43	.87
거친 언어 사용하기	.45	.83	.30	.57	.35	.67	.40	.75	.38	.70
비정형적 행동하기	1.50	2.12	1.10	1.21	1.50	2.04	1.10	1.33	1.30	1.71
훈육하기	2.65	1.69	2.55	1.54	2.00	1.49	3.20	1.51	2.60	1.60

아보다 어머니가 애정을 표시한다고 더 많이 표상 해냈으며, 5세는 4세보다 어머니에 대해 훈육하는 사람으로 더 많이 표상 해냈다. 남아의 경우 4세에 비해 5세가 어머니에 대해 훈육하는 사람으로 더 많이 표상 해낸 반면, 여아의 경우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

2.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범주간의 관계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범주들, 즉 긍정적 표상, 부정적 표상, 훈육적 표상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범주간의 상관계수

	긍정적 표상	부정적 표상	훈육적 표상
긍정적 표상	-	-	-
부정적 표상	-.762 **	-	-
훈육적 표상	.130	-.447 **	-

** $p < .01$

표 4에 의하면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 표상은 부정적 표상과 부적 상관($\gamma = -.762, p < .01$)을 보였고 혼육적 표상과는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 표상은 혼육적 표상과 부적상관($\gamma = -.447, p < .01$)을 보였다. 즉, 유아가 어머니를 부정적으로 표상 할수록 긍정적 표상과 혼육적 표상은 적었음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을 긍정적 표상, 부정적 표상, 혼육적 표상의 3가지 범주로 대별하여 살펴보았을 때 긍정적 표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혼육적 표상, 부정적 표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유아들이 정서적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유아-어머니간의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기술해냈는데, 이는 어머니와의 현재의 애착관계에 대한 표상, 즉 내적 실행 모델의 평가라는 면에서 볼 때 어머니와의 안정적인 애착을 시사한다. 그러나 연구대상 유아 중 몇 명은 “모르겠어요”라고 회피하다가 연구자의 비지시적 촉진자극을 통해 놀이를 진행해가면서 ‘부모의 여행출발’ 이야기나 ‘소의’ 이야기에서 어머니나 아버지 인형을 죽여버리는 식으로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런 유아들은 다른 유아들에 비해 어머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상 하는 횟수가 더 많았다. Oppenheim(1997)이 제시한 유아의 애착안정성의 3가지 차원, 즉 정서적으로 부담되고 갈등되는 주제에 대한 정서적 개방성, 격리 및 스트레스 상황의 건설적 해결능력, 이야기 완성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분위기의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의 3가지 차원에서 평가해볼 때 이런 유아들은 어머니와의 불안정 애착의 가능성이 시사된다.

둘째, 남아의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 표상과 혼

육적 표상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이 나타났다. 즉 남아의 경우 4세보다 5세에서 긍정적 표상이 더 많이 나타났으며 혼육적 표상도 4세보다 5세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여아의 경우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긍정적 표상과 혼육적 표상이 더 감소하였다. 이런 연령간 차이는 연령에 따른 사회화의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머니를 사회적 규준과 더 일치하는 식으로 더 긍정적이고 적절히 혼육하며 덜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했을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한 결과가 Oppenheim, Emde와 Warren(1997)의 연구에서도 밝혀졌다. 유아가 4세 때와 5세 때 MSSB를 이용하여 어머니에 대해 표상하는 것을 비교하여 이러한 표상들이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탐색한 결과, 4세 때에 비해 5세 때에 긍정적, 혼육적 표상이 많아지고 부정적 표상은 줄었다. 한편으로는 사회인지 발달로 표상 횟수의 차이를 설명해 볼 수도 있는데 Bretherton, Prentiss와 Ridgeway(1990)는 5세들의 나레이티브가 3세들에 비해 가족구성원들에 대해 더 구별되고 상세하게 묘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발달 경향은 본 연구에서 발견되어진 4세와 5세간 긍정적·혼육적 표상 횟수의 증가를 설명해줄 수 있을 것 같으나 부정적 표상 수의 감소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애착 이론에서는 영아와 유아가 다른 방식으로 양육자의 지원을 필요로 하듯이 애착관계가 발달함에 따라 내적 실행모델도 적용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데 연령증가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표상의 차이는 갱신된 내적 실행모델을 나타냄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남아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 표상과 혼육적 표상이 많았고, 여아의 경우는 오히려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적 표상과 혼육적 표상이 더 적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모는 자신과 동성인 자녀에게 더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는 한편 동성자녀에게 더 엄격하게 그리고 처벌적으로 행동하며(Perry & Bussey, 1984),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불

때 부모는 자녀가 성숙함에 따라 점점 덜 통제하는 경향이 있으며(Shaffer, 1994), 특히 유아원 시기를 지나면서 부모는 남아에게 독립성을 요구하고 일상생활에서 더 자유를 준다(Berk, 1994)는 연구 결과들과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부모는 아들·딸에 대한 성 정형적인 생각과 기대를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환경을 만들어주는 차별적 사회화 환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행동들 중 '애정표시하기'는 남아에 비해 여아에게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많이 나타났다. 이 또한 남아와 여아의 차별적 사회화 환경을 반영하는 것 같다. 즉, 남자는 일상생활에서 '남아같이' 행동하고 '여아같은' 행동을 피하는 일에 더 큰 압력을 받으며(이영·조연순(역), 1991, 재인용), 어머니는 남아보다 여아에게 더 온정적이고 일관된 양육행동을 보인다(권연희, 1996)는 연구결과들과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을 범주별로 나누어 긍정적 표상의 차이를 검증했을 때는 남아와 여아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 범주들간의 관계에서는 어머니에 대해 부정적 표상을 많이 할수록 긍정적 표상과 훈육적 표상의 횟수는 적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부모양육 연구들은 부모의 온정과 통제가 직교하는 차원이며 두 차원에서 높고 낮은 수준의 조합에 따라 부모 양육 유형들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 표상이 긍정적 표상 및 훈육적 표상과 부적상관을 보였음은 부모의 통제 차원과 관련되는 훈육적 표상과 온정차원과 관련되는 긍정적 표상 및 부정적 표상들이 유아가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대한 독립적인 면들을 반영함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이 중류층의 비임상적 모집단의 유아 40명으로 구성되었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본 연구에 나타난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들과 실제 어머니의

행동간의 연계성이 검증될 수 없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정서 또는 행동 장애를 가진 유아들과 정상 유아들이 구성된 표상들의 특질을 비교하는데 초점을 두는 연구가 필요하고,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표상과 유아의 사회·정서적 적응간의 연관성을 검증해보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미국에서 사용한 MSSB를 그대로 번안하여 사용하였고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표상 행동들에 대한 요인분석 없이 Oppenheim 등(1997)의 범주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위해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연희 (1996). 어머니 양육 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경희 (1986). 아동심리학. 서울: 박영사.
- 나유미 (1996). 한국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행동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용임 (1995). 영아-어머니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 변인. *아동학회지*, 16(1), 113-131.
- 박용임·유명희 (1997). 애착의 지속성에 관한 단기종단적 연구. *아동학회지*, 18(2), 33-46.
- 신의진·이경숙·이혜란 (1999). 학령전기 아동의 심적 표상: 부모에 대한 심적 표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0(1), 21-33.
- 이숙희·김숙령 (1995).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1), 87-100.
- 이영·박경자·나유미 (1997). 애착 Q-set의 국내 준거 개발 연구. *아동학회지*, 18(2), 131-148.

- 이영·조연순(역). (1991). **아동의 세계: 태내기에서 청년기 발달까지**. 서울: 양서원.
- 이영환 (1993). 낯선 상황에서 영아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에 관한 사례연구. **아동학회지**, 13(2), 5-18.
- 이정희 (1994). 취업모와 자녀간 애착안정성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은영 (1996). 어머니의 아동 양육 방식이 5세 아동의 애착관계와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7(1), 213-226.
- 홍계옥 (1995).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애착행동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계옥·정옥분 (1995).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모자 애착행동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6(1), 99-112.
- 홍계옥·최경순 (1996). 유치원 유아의 모자녀간 애착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1), 101-116.
- Berk, L. E. (1994). *Child Development* (3rd ed.). Boston: Allyn & Bacon.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2nd ed.). New York: Basic Books.
- Bretherton, I. (1985).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pp. 3-35).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 Bretherton, I., Prentiss, C., & Ridgeway, D. (1990). Family relationships as represented in a story-completion task at thirty-seven and fifty-four months of age. In I. Bretherton & M. W. Watson (Eds.), *Children's perspectives on the family* (pp. 85-106). San Francisco: Jossey-Bass.
- Bretherton, I., Ridgeway, D., & Cassidy, J. (1990). Attachment relationship: An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for 3-year-olds. In M.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pp. 273-308).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assidy, J. (1988). Child-mother attachment and the self in six-year-olds. *Child Development*, 59, 121-134.
- Cicchetti, D., Cummings, E. M., Greenberg, M., & Marvin, R. S. (1990). An organizational perspective on attachment beyond infancy: Implications for theory, measurement, and research. In M.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pp. 3-49).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agan, J. (1971).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 LaFreniere, P. J., & Sroufe, A. (1985). Profiles of peer competence in the preschool: Intercorrelations between measures influence of social ecology, and relation to attachment history. *Developmental Psychology*, 21, 56-69.
- Londerville, S., & Main, M. (1981). Security of attachment, compliance, and maternal training methods in the second year of life. *Developmental Psychology*, 17, 289-299.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pp. 66-104).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 Main, M., & Cassidy, J. (1988). Categories of response to reunion with the parent at age six: Predictable from infant attachment classifications

- and stable over a one-month period. *Developmental Psychology*, 24, 415-426.
- Oppenheim, D. (1997). The attachment doll-play interview for preschooler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0, 681-697.
- Oppenheim, D., Emde, R. N., & Warren, S. (1997). Children's narrative representations of mothers: Their development and associations with child and mother adaptation. *Child Development*, 68, 127-138.
- Oppenheim, D., Nir, A., Warren, S., & Emde, R. N. (1997). Emotion regulation in mother-child narrative co-construction: Associations with children's narratives and adapt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3, 284-294.
- Oppenheim, D., & Waters, H. (1995). Narrative processes and attachment representations: Issues of development and assessment. In E. Waters, B. Vaughn, G. Posada, & K. Kondo-Ikemura (Eds.), *Caregiving, cultural, and cognitive perspectives on secure base behavior and working models: New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pp. 197-215).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0(2-3, Serial No. 244).
- Park, K. A., & Waters, E. (1989). Security of attachment and preschool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60, 1076-1281.
- Perry, D. G. & Bussey, K. (1984). *Social Development*. New York: Prentice-Hall.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7-424.
- Shaffer, D. R. (1994). *Social & Personality Development* (3rd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Shouldice, A., & Stevenson-Hinde, J. (1992). Coping with security distress: The separation anxiety test and attachment classification at 4.5 year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3, 331-348.
- Slough, N. M., & Greenberg, M. T. (1990). Five-year-olds' representations of separation from parents: Responses from the perspective of self and other. In I. Bretherton & M. W. Watson (Eds.), *Children's perspectives on the family*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Vol. 48). San Francisco: Jossey-Bass.
- Turner, P. J. (1991). Relation between attachment, gender, and behavior with peers in preschool. *Child Development*, 62, 1475-1488.

Children's Narrative Representations of Mothers

Youngmi Ryu Young Lee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ge and sex differences in children's representations of mothers in their play narratives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positive, negative, and disciplinary representations of mothers.

20 four-year olds and 20 five-year olds were interviewed using the MacArthur Story-Stem Battery. Children's narratives were coded from videotapes based on the coding system of Oppenheim, Ernde, & Warren's(1997) study.

Positive representations of mothers were most frequently observed, followed by disciplinary and negative representations. Five-year old boys had more positive and disciplinary representations of mothers than four-year old boys. On the other hand, five-year old girls had less positive representations of mothers than four-year old girls. Children with more positive and disciplinary representations of mothers tended to have less negative representations of mothers.